



한중 '기업인 신속통로' 첫 가동...기업인 2백여 명 출국

기사입력 2020-05-11 08:09



한중 양국이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, 이른바 '신속통로' 제도화에 합의한 가운데, 어제 우리 기업인들이 '신속통로'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.

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, 협력사 직원 등 관계자 215명이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텐진으로 출국했습니다.

'기업인 신속통로'는 한중 양국 간 필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, 출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중국 내 '14일 의무격리'가 면제됩니다.

이번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,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한중 간 경제 복원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.

함께 참석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,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 기업인 입국 간소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.

외교부는 현재 중국 내 10개 지역인 신속통로 적용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[저작권자(c) YTN &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
- ▶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.
- ▶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
- ▶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52&aid=0001438388>
